# 학생·지도법사, 대학생 전법에 머리 맞대다

## 조계종 포교원 · 대불련, 대학생 전법간담회

### 6월 29~30일 양일간 마곡사 등서
### 대학생 · 지도법사 전법 방안 모색
### 불법메이트 · 전법토크쇼 등 진행

유재상 충청지사장, 김가령 수습기자


전법간담회에서는 지도법사 스님 1명과 대학생 5~6명이 한 팀을 이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불자 대학생과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생 전법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 이하 대불련)가 6월 29~30일 양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과 마곡사에서 '스님 불교 재미있나요'를 주제로 '2024 대학생 전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법간담회에는 시현 스님(성신여대), 동진 스님(동국대), 지단 스님(고려대), 우경 스님(전북대), 대원 스님(국민대), 선행 스님(공주교대) 등 각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스님과 국민대, 고려대, 동국대 등 15개 대학교 30여 명의 학생이 함께했다.

입재식에서 포교원 신도국장 자경 스님은 "지도법사 스님들과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기 때문에 항상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간담회에서 나누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대학생 법우들이 부처님 법에 더욱 의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주현우 대불련 중앙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지도법사 스님과 학생들이 서로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며 알아가는 시간"이라며 "간담회에서 보다 행복한 불교동아리를 만들어갈 바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전법간담회에서는 지도법사 스님 1명과 대학생 5~6명이 한 팀을 이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처음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인사하는 '불(佛)법메이트', 지도법사 스님과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전법토크쇼: 불(佛)쏘시게', 불교동아리의 1년 활동을 만드는 '전법 팀플' 등을 통해 서로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통하며 대학생 포교와 전법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이윤정 마인드코칭연구소장을 초청한 특강도 열렸다. 특강에서 참여자들은 이 소장과 조계종 포교원이 함께 연구·개발한 에니어그램 기반 성격 유형 테스트 '불교 에니어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불교 에니어그램을 포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불교 에니어그램은 MBTI와 유사한 성격 유형 테스트로, 나에게 맞는 신행 방법을 추천받을 수 있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오늘 간담회는 불교동아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타학교 학생들, 지도법사 스님들과 다양한 신행 활동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유주연 창원대 학생은 "지도법사 스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뜻 깊었다"며 "앞으로 불교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스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도법사 스님들 역시 학생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국민대 지도법사 우경 스님은 "학생 법우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가슴 뛰고 좋았다"며 "다음 간담회에는 더 많은 지도법사 스님과 학생들이 참여해 불교 전법의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 송광사 영산회상도·팔상도 국보지정서 전달식

### 6월 27일, 경내 대웅보전서 봉행
### 보물 지정 21년 만에 국보 승격



국보지정서 전달식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6월 2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 국보지정서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수좌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들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명창환 전남부지사, 유현호 순천시부시장 등이 참여해 축하했다.

무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송광사에는 이번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의 국보 승격으로 5건의 국보와 보물 28건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게 됐다"며 "송광사의 성보유산들은 한국전쟁이라는 참화 속에서 모두 사라질 뻔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으나, 선대 스님들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 지금에 이르렀다. 앞으로 이 성보들을 간직하고 이어갈 스님들과 사부대중 모두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송광사 영산회상도, 팔상도는 2003년 보물로 지정돼 21년 만에 국보로 승격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의 수작이다"며 "국가유산청이 출범한 후 국보를 지정하게 돼 더욱 축하한다"고 밝혔다.

2003년 보물로 지정된 후, 21년 만에 국보로 승격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일괄로 제작한 불화다. 특히 이번 국보 지정은 올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 이래 첫 사례다. 이 작품 중 팔상도 4폭(도솔래의상, 비람강생상, 수하항마상, 쌍림열반상)은 올해 호암미술관의 특별전시에도 출품된 바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서산 보원사지 복원하는 AI 경진대회 열린다

### 청소년 대상, 8월 12~16일 접수
### 메타버스 온라인 교육도 제공도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충남 서산 보원사지를 복원하는 청소년 경진대회가 열린다.

보원사는 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2024년 보원사지 AI 메타버스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AI를 활용한 메타버스 '보원사지 가상현실 문화유산 프로젝트'인 이번 경진대회는 복원사지 복원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사라진 보원사의 과거 신행공간을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자기 주도적인 사찰의 이해를 중심으로 매타버스 공간에 맵을 구축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문화유산과 메타버스를 융합한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작품 접수는 8월 12~16일이며 8월 17~20일 심사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원, 우수상 2명에게 30만원, 장려상 5명에게 20만원이 수여된다.

보원사는 메타버스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을 위해 '메타버스 온라인 수업'도 제공한다. 7월 11일 오후 7시부터 보원사 활동 내용 소개 및 보원사지 역사와 건축이해 교육이 진행된다. 7월 12일에는 인공지능 활용과 보원사지 메타버스 맵의 이해, 생성형 인공지능 실습 등의 교육이 제공된다. 7월 18~19일에는 메타버스 제작 실습과 오브젝트가 8월 8~9일에는 경진대회 작품 멘토링 및 출품 관련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돼 있다.

수상발표는 8월 23일 보원사 홈페이지(www.bowonsa.kr)에서 확인가능하다. 9월 7일부터 수상작이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시상식은 10월 12일 열린다.

한편 보원사는 2021년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보원사지 복원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 로블록스, 2023년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를 이용한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010-5106-0107 임은호 기자

# 금산사 대적광전 5여래 6보살상 개금불사

### 6월 29일, 점안법회 봉행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대적광전 5여래 6보살상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6월 29일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이날 법회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을 증명법사로 불교 전통 점안의식으로 진행됐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오늘 개금불사 점안식은 전 주지 일원 스님의 원력에 의해 이뤄졌다"며 "불사를 이뤄낸 일원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주지 화평 스님은 "지난 산중총회에서 전북에 불교방송 개국, 불교요양원 건립, 소통하는 금산사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은사이신 월주 스님을 오래 시봉하면서 애종심과 공심, 보살행을 실천해야 함을 배웠다. 배운 것과 그간의 복지 실천 경험을 살려 금산사와 교구 발전을 위해 힘껏 일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익산 삼불암, 호국영령 위령 영산대재

### 순국선열 극락왕생 기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영산대재가 마련됐다.

익산 삼불암(회주 심월 스님, 주지 법정 스님)은 6월 29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전몰군경 전사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제1회 삼불암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영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익산 삼불암은 20여 년 전부터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재를 지내오다 올해부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산대재를 봉행하게 됐다.

삼불암 회주 심월 스님은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던진 순국선열들은 사사로움이 없는 영혼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영혼과 함께하며 윤택하고 싸움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명승' 지정

### 국가유산청 6월 29일 지정 고시
### 김제시 "방재시스템 구축할 것"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사진〉이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된 이후 명승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당시 문화재위원회)가 6월 20일 김제 망해사 일원을 국가 자연유산 명승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망해사는 올해 3월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 됐으나 4월 불의의 화마로 대웅전이 소실된 바 있다.

김제시는 올해 5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화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역사적·경관적·생태·학술적 가치가 보존됨에 따라 명승으로서 주요 가치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마곡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음악회

### 등재 6주년 기념해 열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6월 29일 경내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6주년을 기념해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빗속에서도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마곡사 본·말사 스님들, 최원철 공주시장, 정수용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안병권 제6교구 신도회장, 이윤진 마곡사 신도회장이 참석했다.

원경 스님은 "문화유산 등재일에 맞추다 보니 마침 장마 시작일과 겹쳤다"며 "내년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날에 더 좋은 음악회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의 자랑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고승대덕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안성 법계사, 헌혈로 이주민과 인연 맺어

### 6월 30일 헌혈 행사 진행



안성 법계사(주지 도윤 스님)는 안성 스리랑카 이주민 단체인 안성 유나이티드(회장 다린다)와 함께 6월 30일 '가장 귀한 것을 나누다!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스리랑카 이주민 70명이 동참해 헌혈했다.

주지 도윤 스님은 "마음을 내서 진행한 행사에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참여해 줘서 감사하다"며 "고귀한 헌혈 행렬에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다린다 안성 유나이티드 회장은 "연 1회 정기적인 헌혈 보시 행사를 열어, 부처님 말씀대로 나누고 동참하는 일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진안 쌍봉사, 취약계층에 밑반찬 나눔

### 관내 차상위계층 150가구에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가 장마철과 혹서기를 앞두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6월 29일, 쌍봉사 밑반찬 나눔 봉사단(회장 김진옥) 자원봉사자들은 쌍봉사 만복소당에서 열무 얼갈이 물김치 등을 담아 포장했다.〈사진〉

정성으로 만들어진 반찬은 진안지역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과 장애인 가구, 홀몸 어르신, 80세 이상 어르신 등 지역주민 150가구에 전달됐다. 보경 스님은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반찬을 만들어 준 봉사자들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황룡사, '국악엑스포 성공기원' 산사음악회

### 6월 30일, 대웅전 특설무대서



영동 황룡사(주지 종림 스님)가 6월 30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2025년 개최되는 국악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산사음악회에는 황룡사 주지 종림 스님과 혜정 스님(고당사 주지), 명원 스님(반야사 주지), 원우 스님(원우사 주지), 정영철 영동군수, 이승주 영동군의장, 정영옥 영동군불교신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종림 스님은 "영동 불교계는 '20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템플스테이 시설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산사음악회를 계기로 영동의 국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